



# 담판한이 되어 앞만 보고 걸어가라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 법전 스님

남자가 고개를 돌리니 말했습니다. "담판한(擔板漢)이구나."

'담판한'은 널따랗고 긴 판대기를 등에다가 지고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쪽 면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한 면 만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한 말입니다. 단견에 빠져있는 외골수 내지는 외고집이라는 뜻입니다. 조주선사도 시원찮은 남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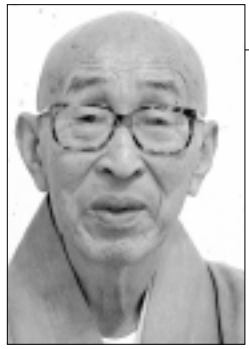
를 '담판한'이라고 꾸짖었습니다. (中略)

이제 석 달 공부살림살이를 마치고 동안거 해제를 하는 날입니다. 해제를 해도 행동거지는 담판한이 되어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할지 제대로 결단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두 역시 담판한처럼 제대로 망상을 붙이지 말고 한 길로만 꼭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결제는 앉아서 몸을 담판한을 만드는 것이요, 해제는 서서 마음을 담판한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담판한이 되어 도반과 선지식으로부터 '정말 담판한!'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담판한을 벗어나

는 도리가 참으로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담판한(擔板漢)이 낙수가(落家)로 일찍이(一隻眼)로 여하간(如何辨)고 삼산오월명중(深山午夜月明中)에 규곡석인심중전(峴石人心箭)이로다 담판한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떨어질 것인가를 한쪽 눈만 가지고서 어떻게 가릴 수 있겠는가? 깊은 산 한밤중에 달은 밝은데 울부짖는 돌장승은 심장에 화살을 맞은 탓이로다.

### 공함이 없으니 이것이 여래 진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 지종 스님

청정료(淸淨廖)하여 적조조(赤條條)하였구나. 수불능표(水不能漂)하며 화불능소(火不能燒)하다. 시생영지대본(是生靈之大本)이며 위조대지고표(爲祖代之高標)로다.

소이도(所以道)로 검화종교만사회(劫火從教萬事灰)하여도 검공항유일영대(劫空恒有一靈臺)하다. 수연(雖然) 불견사호허(不見絲毫許)하지만 유출항사묘용래(流出恒妙妙用來)하다.

맑고 고요하여 별거벗고 속을 다 드러내었구나.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능히 태우지 못하는 도다. 이는 중생의 근본이며, 조사의 드넓은 기치로다. 그런 까닭에 괴겁의 불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더라도 공경에는 항상 하나의 영대(靈臺)가 남아있었다. 비록 한 터럭만큼도 보이지 않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묘한 작용이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다.

무상무공무불공(無相無空無不空)하니 즉시여래진실상(卽是如來眞實相)이라 본공지허무일물(本空至虛無一物)하되 대연수시만반형(對緣垂示萬般形)이로다.

형상도 없고 공함도 없고 공하지 않음도 없으니 바로 이것이 여래의 진실상이로다. 본래 공함에 이르러 한 물건도 없으니 인연을 대하여 드러내 보이니 만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도다.

### 오직 뜻·생각 밝기만을 구하라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 원담 스님

<주장일타> 상현월락야반장(霜天月落夜半將) 다소성재연우중(多少星彩烟雨中)

사사단절무념처(思思斷絕無念處) 최초일성만이중(最初一聲滿耳中) 서리 찬 하늘에 달은 지고 밤은 깊었는데 별빛은 자욱히 내려 촉촉이 잠겼네 생각 생각 끊어져 한 생각 없는 곳에 최초의 한 소리 귀에 가득하네

대중들이여! 참선을 하되 안목을 바르게 하라. 성현(聖賢)의 묘법과 해탈법을 따로 구하지 말라. 이것이 남자들의 바른 안목이니, 묘한 말과, 신통 기적이 있으면, 거기에 혹(惑)하여 따라가는 대중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천불이 출현해도, 제도치 못하느니라. (中略)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옹동치는 마음을 쉬며, 공적한 자리에 들어가 공적함을 반영하여, 오직 뜻과 생각이 밝기만을 구하라,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면, 그 때에 최초의 한 소리, 귀에 가득하리라.

우후춘산화만수(雨後春山花滿樹) 청풍나경차인연(淸風那更借因緣) 비온 뒤 봄산은 꽃이 만발 하였는데 맑은 바람은 어찌 다시 인연에 의지하리오.

### 깨닫고자 하거든 분별심 버려라



태고종 종정 · 태고총림 방장

## 혜초 스님

또 한해가 바뀌어 병술년 동안 해제일입니다. 매번 해제일이 되면 어떤 이는 마음이 가볍고 흥분할 것이고, 어떤 이는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 것입니다.

마음이 가볍고 흥분한 사람은 수행을 한답시고 간절한 생각없이 그저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사람일 것이고,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사람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진일보(進一步)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진에 임했으나 이번 안거(安居)에도 크게 얻는 것이 없구나 하는 허탈한 심정을 가진 사람 들일 것입니다.

그대들이 진정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든 먼저 관념(觀念)의 노예(奴隸)가 되는 마음을 버려시오. 마음을 버리면 분별심(分別心)이 없어지고 분별심이 없어지면 대상(對象)과의 차별(差別)이 없어집니다. 대상과의 차별이 없어진 이상 어찌 시비(是非)가 있을 것이며, 시비가 없어진 이상 어찌 생사(生死)와 열반(涅槃), 중생(衆生)과 부처(佛),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분별과 차별이 없어진 경계(境界)가 부처가 머무는 곳입니다. (中略)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통털어 무시무종(無始無終)입니다. 따라서 결제해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대혜종고선사의 말씀대로 진정한 수행인은 때(時)를 가리지 않고 정처(靜處)와 요정(禪井)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디 만행(萬行)을 떠나 세상을 둘러보면서 보다 큰 뜻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 “불교식 장례문화 개념·제도 정립해야”

이종표 교수, 불교학원 '불교장례문화' 워크숍서 제안

“도대체 불교적인 장례문화란 무엇입니까?” 2월 24일,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 워크숍 현장. 밤 9시까지 계속된 주제 발표가 끝나자 이종표 교수(전남대 철학과, 前 불교학연구회장이) 질문을 던졌다.

이 교수는 “장법이냐 장례 절차도 물론 여법해야겠지만, 그보다 불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교리·사상적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불교식 장례 절차의 개념과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학연구회가 2월 24-25일 영천 은해사에서 개최한 겨울 워크숍은 ‘불교의 장례문화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불교적인 장례’의 정의부터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한 송현동 교수(건양대 예식산업학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상업화로 인해 죽음에 대한 종교의례적인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며 “종교계가 앞장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매장이냐, 화장이냐는 장묘문제를 두고 고민하는데 앞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올바르게 심어주는 ‘종교의례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송현동 교수

###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 바꿔야”

김달수 교수

### “수목장은 친환경적인 장묘법”

이를 위해 불교학연구회는 종단이나 단체 등이 앞장서 불교식 장례문화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장례방법과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분각 스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행해지고 있는 장례법을 통일하고,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최근 새로운 장례문화로 각광 받고 있는 수목장(樹木葬)이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달수 교수(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는) ‘수목장의 유형과 발전 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수목장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은 “수목장은 잘못 도입될 경우 산림훼손이 나타날 수 있고, 산불위험이나 병충해에도 취약하다”며 “일부 종교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수목장을 운영할 경우 △집단민원발생 △분양사기 △타 종교단체에 매도 등 시설 운영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팀장은 “수목장 운영 주체를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바람직한 자연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불교문화대학 2007학년도

## Seoul Buddhist Culture College

# 신입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2007학년도 수행의 바쁜 일정 중이신 스님들께 불교 교육의 원을 실천하여, 체계적인 불교 이론과 실습을 겸할 수 있는 **승가학과**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일반인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불교의 체계를 배울 수 있는 **불교학과**를 개설하여 공허해지기 쉬운 현대인들의 정신세계에 우주법계의 밝은 가르침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대학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 - 주간반, 통산반 과정개설

1) 승가학과: 2년제

교과목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 불교학 개론 ● 근본불교사상 ● 임보리행론(원전강독) ● 원각경 ● 불교의식 (사물/조석예불)	● 불교문화사 ● 시문抄 (원전강독) ● 경전개설 ● 불교의식 (상주권공)	● 서장 ● 유식·중관학 ● 금강경 강화	● 화엄사상 ● 천태소지관 (원전강독) ● 법화경 강화 ● 불교의식 (바라, 나비춤)	● 화엄사상 ● 천태소지관 (원전강독) ● 법화경 강화 ● 불교의식 (시련, 작별, 호적)

2) 불교학과: 1년제

교과목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 불교학 개론 ● 근본불교 사상 ● 천수경 강의	● 참선 의 ● 불교문화사 ● 관음경 강의	● 금강경 강의 ● 법화경 요점 강의

3) 특강: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대승기신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상담론

● 강의시간 및 교수진

1) 2007학년도 1학기 강의 시간표

승가학과	교시	시 간	월 화 수 목	수	목
1학년 1학기	1교시	오후2시-3시20분		특강	1,3,5배주 금 2,4배주
1학기	2교시	오후3시30분-5시			불교학개론(신규특교수) 불교의식(최봉수교수) 불교의식(홍일스님) 임보리행론(원승규교수) 근본불교(최봉수교수) 불교의식(홍일스님)
불교학과	교시	시 간	월 화 수 목	수	목
1학년 1학기	1교시	오후2시-3시20분		특강	1,3,5배주 금 2,4배주
1학기	2교시	오후3시30분-5시			불교학개론(신규특교수) 원각경(신규특교수) 관음경(신규특교수) 금강경(최봉수교수) 천수경 강의(이동형교수)

### 2) 교수진

교과목	교수사	소 개
근본불교	최봉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박사 수료 인터넷 불교대학 지도교수
불교학 개론, 원각경	신규특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 대학원 중국철학 석사 동경대학교 대학원인도·중국철학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
임보리행론(원전강독)	양승규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박사 수료, 동국대 경주 캠퍼스, 중앙승가대학 강의, 티벳 불교 전공
관음경 강의	이동형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 대학원 금속공학 석·박사 학위, 신라원(德樂苑)에서 매주 법화경 강의
불교의식 강의	종일 스님	1967년 월하스님 문하 입산, 1979년 통도사 강원 출현, 1999년 대한민국 무령문화제 제 50호 범패 이수자 지정
특 강	교계 최고의 선지식, 교수진을 모신 강의 - 경장, 율장, 논장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강의 주제에 맞는 선지식과 교수진 초청 예정	

● 특 전

학 과	특 전
승가학과	2학년 과정 이수 후: 일반 유수 불교대학 입학 추천, 동국대학 불교대학원 추천, 전통 범음보존회원 자격 부여
불교학과	재가 불자 필수 수계 자격증의 시험을 거쳐 포교사 및 전법사 자격 부여

### 신입생 모집 요강

● 모집내용

학 과	승가학과 총 60명 모집	불교학과 총 60명 모집
구 분	주간반 30명	통산반 30명
수업료	55만원, 입학료 10만원	60만원(통신비포함), 입학료 10만원
		35만원, 입학료 10만원
		40만원(통신비포함), 입학료 10만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

## 서울 불교 문화 대학

(우)110-5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178-3번지  
☎ 02)763-3001, 0054 Fax. 02)763-5851, http://my●gaksa.net